

현안과 과제

■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 과제

< 요약 >

1. 인프라 고령화 속 안전의식 하락

- (성수대교 붕괴 20년) 10월21일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만20년째 되는 날이지만,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. 도로, 다리, 터널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.
- (인프라 고령화) 도로, 다리, 터널 등 시설물 가운데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이 1984년 325개에서 2014년 현재 2,328개로 급증하고 있음
 - 인프라 고령화율도 2014년 현재 11.0%에서 2024년 24.4%로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
- (안전의식 하락) 2014년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17점 정도로 매우 저조하고, 2007년의 30.3점에 비해 크게 하락했음
 - 안전의식이 '매우 부족하다' 50.9%, '다소 부족하다' 44.1%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

2. 안전의식 실태 및 문제점

- (안전의식 실천 실태) 승용차 뒷좌석에서 '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'(67.5%), 비상구가 없거나 부실한 노래방에서 '그냥 이용한다'(81.9%) 등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, 특히 20대와 학생이 가장 크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
- (시설물 안전수준 평가) 우리 생활주변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 등의 종합적 안전 수준은 10점 만점에 5.3점으로 매우 저조하며, 선진국(7.8점) 수준에 크게 못 미침
- (안전 실습교육 실태)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는 응답이 45%, 소화기 사용 실습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는 경우도 31.1%에 달함
 - 화재 등 비상시에 대피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전체의 31.7%에 달하며, 여성, 학생, 전업주부 등이 특히 취약함
- (교육훈련 필요성)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.7%의 압도적 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, 실제로 직접 교육훈련에 참여한 유경험자는 36.0%에 불과함
 - 교육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3.6%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, 적당한 교육훈련 횟수는 '6개월에 1회'라는 응답이 33.6%로 가장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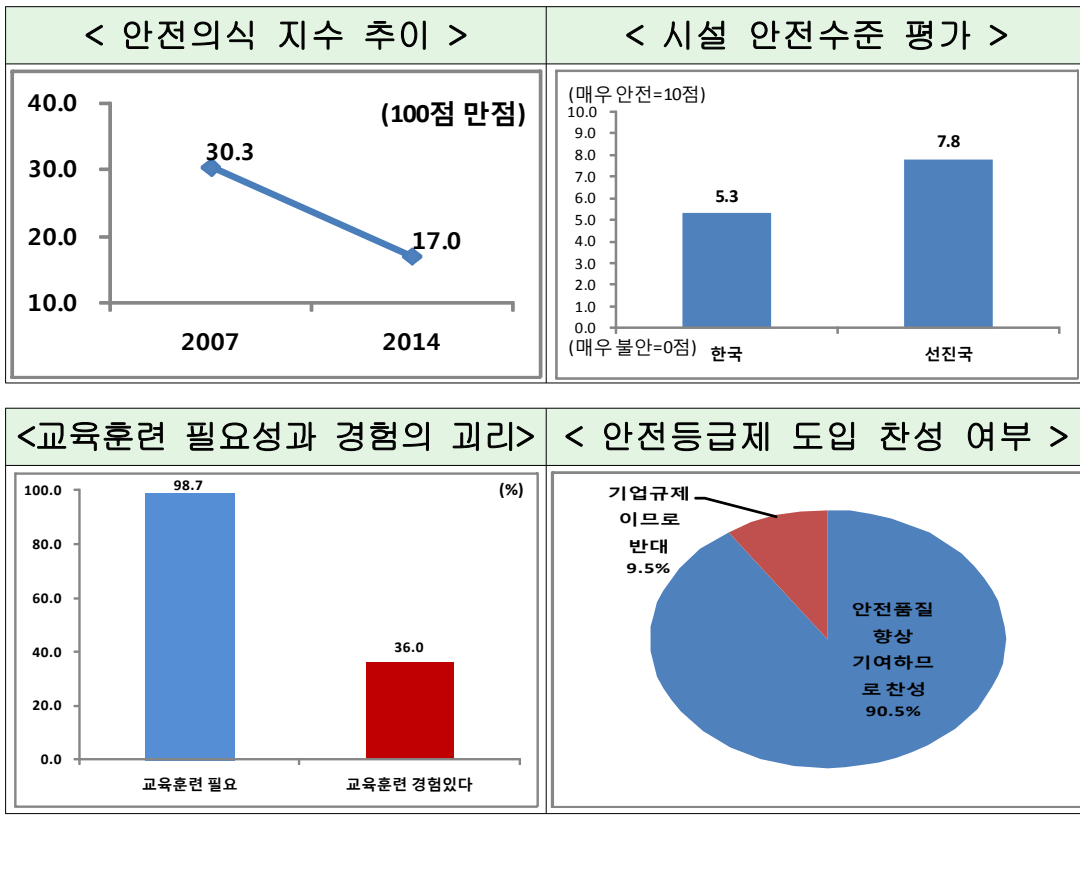
3. 안전 정책 및 투자의 우선순위

- (안전투자의 필요성) 우리 생활·사회 기반시설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전체의 97.2%가 공감을 표시함

- (안전투자의 우선순위) 안전투자의 우선순위는 '생활기반시설'(54.3%)이 '사회기반시설'(45.6%)보다 약간 높았으며, 생활기반시설 중에서는 '학교'(75.4%), 사회기반시설 중에서는 '다리'(33.3%)와 '상하수도'(25.3%)의 우선순위가 높았음
- (안전투자 재원마련 방안) 안전관련 시설·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추가재원의 마련 방안으로는, '정부 예산 내에서 해결'(52.1%)이 가장 높았고, 이어서 '이용자의 요금 인상'(26.3%), '국민 전체 대상의 세금 인상'(21.6%)의 順이었음
- (안전등급제 도입) 안전품질의 평가에 따른 안전등급제의 도입에 대해 10명 중 9명(90.5%)이 찬성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함

4.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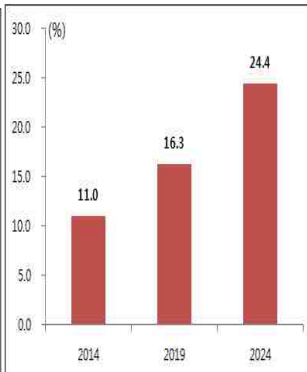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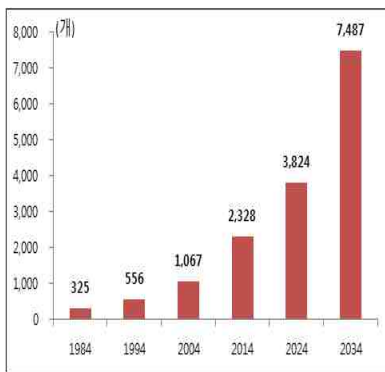
- 아직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, 특히 20대, 학생, 전업주부 등 안전의식과 교육·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
- 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생활기반시설에 집중되어야 하며, 그 중에서도 '학교'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시급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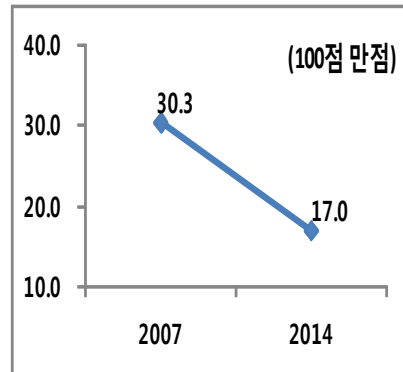
1. 인프라 고령화 속 안전의식 하락

- (인프라 고령화)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시설물의 숫자가 1984년 325개에서 2014년 현재 2,328개로 급증하고 있으며, 인프라 고령화율도 2014년 현재 11.0%에서 2024년 24.4%로 크게 높아지고 있음
 -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, 30년 이상되어 고령화된 시설물이 1984년 325개에서 2014년 2,328개로 급증했으며, 향후에도 2024년 3,824개 2034년 7,487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
 - 3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시설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‘인프라 고령화율¹⁾’이라고 할 때, 이 비율은 2014년 11.0%에서 10년 후인 2024년에는 24.4%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
- (안전의식)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20년이 지났지만, 아직도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²⁾은 100점 만점에 17점 정도에 불과하며, 2007년의 30.3점보다 크게 하락
 - “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매우 부족하다’ 50.9%, ‘다소 부족하다’ 44.1%, ‘별로 부족하지 않다’ 4.2%, ‘전혀 부족하지 않다’ 0.8%로서 전체의 95%가 ‘부족하다’고 응답
 - 매우 부족=0점, 다소 부족=0.3점, 별로 부족 않음=0.7점, 전혀 부족 않음=1점으로 지수화한 결과 17점³⁾으로서 2007년의 30.3점⁴⁾에 비해 크게 하락

< 30년 경과 시설물 추이 > < 인프라 고령화율 >



< 안전의식지수 >



자료: 국토교통부, 시설안전공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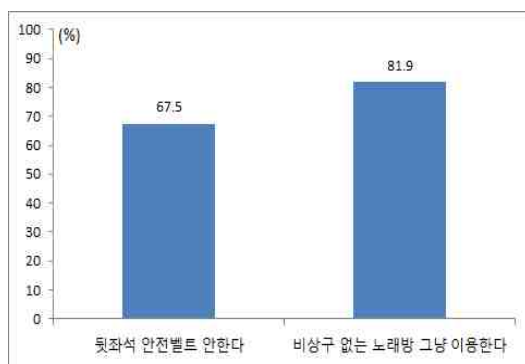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토교통부, 시설안전공단.

- 1) 현대경제연구원(2013), ‘인프라 고령화 실태와 개선과제’, 한국경제주평 2013.4.26, 참조.
- 2)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뢰를 받아 2014년 8월초에 실시한 ‘국민안전의식’ 관련 전화 설문조사 결과.
- 3) ‘안전의식 지수’의 값이 작을수록, 안전의식이 부족하고,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해석.
- 4)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2007년 ‘안전의식조사’ 결과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수화한 결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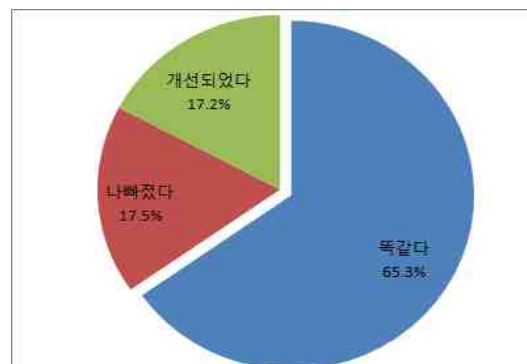
2. 안전의식 및 안전교육 실태⁵⁾

- (안전의식 실천 실태) 승용차 뒷좌석에서 ‘안전벨트를 하지 않고’(67.5%), 비상구가 없거나 불안한 노래방도 ‘그냥 이용’(81.9%)하는 등 생활 속에서 안전의식이 실천되지 않고 있으며, 특히 20대와 학생이 가장 큰 문제임
 - “승용차 뒷좌석에 탔을 때 귀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안전벨트 안하고 간다’가 67.5%, ‘안전벨트를 한다’가 32.5%로서 3명 중 2명은 위험한 상태로 자동차를 탑승하고 있음
 - 20대의 74.6%, 학생의 73.4%가 ‘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’고 답변했으며, 자영업자(72.1%)와 블루칼라(71.7%)도 상대적으로 안전의식이 미흡함
 - “노래방의 비상구가 없거나 불안해 보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그냥 이용한다’가 81.9%, ‘다른 노래방으로 간다’가 18.1%로서 4명 중 3명은 화재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음. 20대의 86.6%, 학생의 92.4%가 ‘그냥 이용한다’고 답변하여 젊은 학생들이 안전의식이 가장 미흡
- (5년 前과 비교)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5년 전과 ‘똑같다’는 응답이 65%에 달하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
 - “안전의식이 5년 전에 비해 변화되었나요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똑같다’는 응답이 65.2%로 가장 많았고, ‘나빠졌다’(17.5%)와 ‘개선되었다’(17.2%)는 비슷함
 - ‘나빠졌다’는 응답이 ‘개선되었다’는 응답보다 더 많은 그룹은 ‘여성’, ‘50대’, ‘자영업자’, ‘전업주부’, ‘고졸’, ‘年2천만 원 미만 소득계층’ 등이었음

< 안전의식 미흡 실태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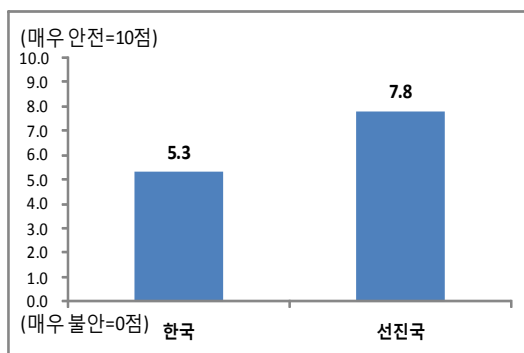
< 안전의식 5년 전과 비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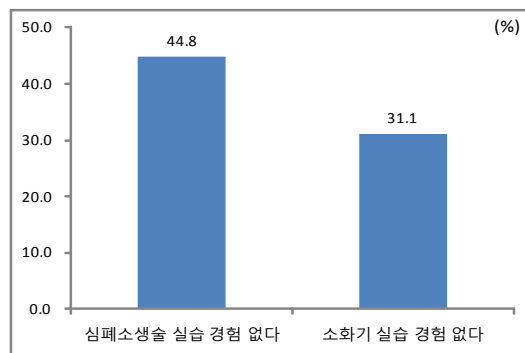
5)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 결과로,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, 2014년 8월5일부터 8월9일까지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. 최대 허용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3.09%임.

- (시설물 안전수준 평가) 우리 생활주변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 등의 종합적인 안전수준은 10점 만점에 5.3점이며, 선진국(7.8점) 수준에 크게 못 미침
 - “우리 생활주변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의 종합적인 안전수준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된다고 보시나요?”(참고로, 매우 불안하다 0점, 매우 안전하다 10점으로 할 경우)라는 질문의 답을 합쳐 보니 평균 5.3점이 도출됨
 - ‘5-6점’ 사이에 56.6%가 위치해 있었으며, 남성(5.5점)에 비해 여성(5.2점)의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, 직업별로는 전업주부(5.1점)가 가장 낮음
 - “미국, 독일 등 선진국의 안전수준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된다고 보시나요?”라는 질문의 답을 합쳐 보니 평균 7.8점이 도출됨
 - 우리나라의 안전수준(5.3점)은 선진국(7.8점)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
- (안전 실습교육 실태)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45%에 달하며, 소화기 사용 관련 실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도 31.1%에 달함
 - “지금까지 심폐소생술 관련 실습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있다’ 55.2%, ‘없다’ 44.8%로서 2명 중 1명 정도는 전혀 경험이 없음
 -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룹은 ‘여성’, ‘고령층’, ‘전업주부’, ‘자영업자’, ‘年소득 2천만원 미만’, ‘고졸이하’, ‘수도권 거주자’로 나타남
 - “지금까지 소화기 사용 관련 실습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있다’ 68.9%, ‘없다’ 31.1%로서 10명 중 3명은 전혀 경험이 없음
 - 소화기 실습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룹은 ‘여성’, ‘고령층’, ‘전업주부’, ‘자영업자’, ‘年소득 2천만원 미만’, ‘고졸이하’, ‘수도권 거주자’로 위와 동일함

< 시설 안전수준 평가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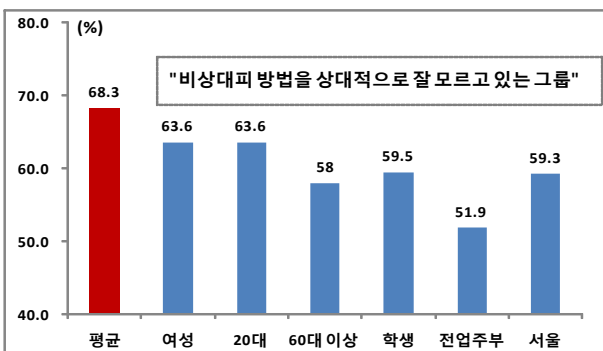


< 안전 실습교육 실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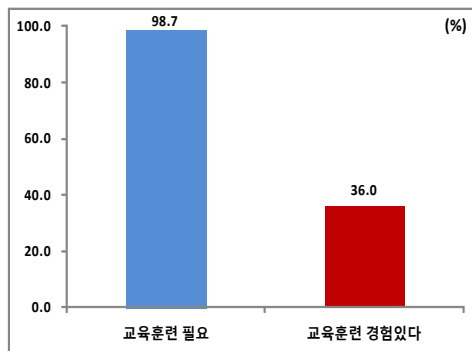


- (비상대피 능력) 화재 등 비상시에 대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전체의 31.7%에 달하며, 특히 여성, 학생, 전업주부 등의 비상대피 능력이 취약함
 - “귀하께서 생활하시는 아파트, 직장 등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방법을 알고 계시나요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알고 있다’는 응답이 68.3%, ‘잘 모른다’ 29.0%, ‘전혀 모른다’ 2.7%로서 전체의 31.7%가 비상대피 능력이 부족함
 - 비상대피 방법을 ‘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’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룹은 ‘여성’, ‘20대’, ‘60대 이상’, ‘학생’, ‘전업주부’, ‘서울 거주자’ 등이었음
- (교육·훈련 필요성)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·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 다수(98.7%)가 공감하고 있음
 - “귀하께서는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,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‘반드시 필요하다’가 75.9%로 압도적이었으며, ‘필요한 편이다’ 22.8%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8.7%가 필요성에 공감
 - ‘별로 필요 없다’(1.0%)와 ‘전혀 필요 없다’(0.3%)는 응답은 매우 미미함
 - 교육훈련이 ‘반드시 필요하다’고 응답한 비율은 ‘여성’, ‘화이트칼라’, ‘고소득층’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- (교육·훈련 경험) 최근 1년 동안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·훈련에 ‘직접 참여한 적이 없다’는 응답이 전체의 64.0%에 달함
 - 최근 1년 동안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, 훈련에 직접 참여한 적이 ‘없다’가 64.0%, 1회 이상 ‘직접 참여한 적 있다’는 36.0%에 불과
 - ‘없다’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‘여성’, ‘60대 이상’, ‘학생’, ‘자영업자’, ‘전업주부’, ‘고소득층’ 등에서 높게 나타남

<비상대피법 잘 알고 있다'는 응답이 낮은 그룹>



<교육훈련 필요성과 경험의 괴리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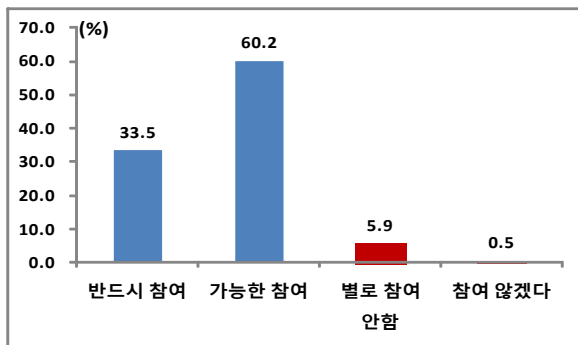
○ (교육훈련 참여 의사) 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3.6%로서 매우 높게 나타남

- “귀하께서는 안전의식 향상과 재난·사고에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시겠습니까?”라는 질문에 ‘반드시 참여 하겠다’ 33.5%, ‘가능한 참여 하겠다’ 60.2%로서 ‘참여하겠다’는 응답이 전체의 93.6%에 달함
- ‘반드시 참여 하겠다’는 응답(33.5%)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룹은 ‘여성’과 ‘50대’, ‘60대 이상’의 고령층이었음
- ‘학생’의 경우 ‘참여하지 않겠다’가 12.7%로 평균(6.4%)을 크게 상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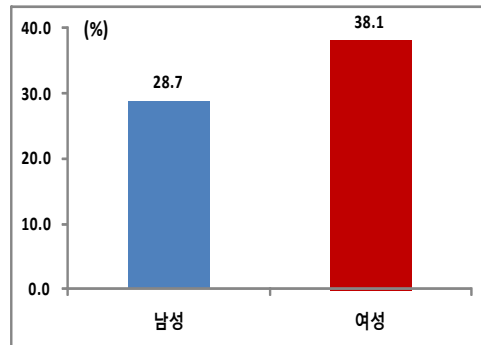
○ (교육훈련 참여 횟수) 안전 관련 교육훈련으로서 적당한 횟수는 ‘6개월에 1회’라는 응답이 39.1%로서 가장 높게 나타남

- “귀하께서 만약 안전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하신다면,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6개월에 1회’가 39.1%로 가장 높았으며, 이어서 ‘3개월에 1회’ 33.6%, ‘12개월에 1회’ 20.2%, ‘1개월에 1회’ 7.0%의 順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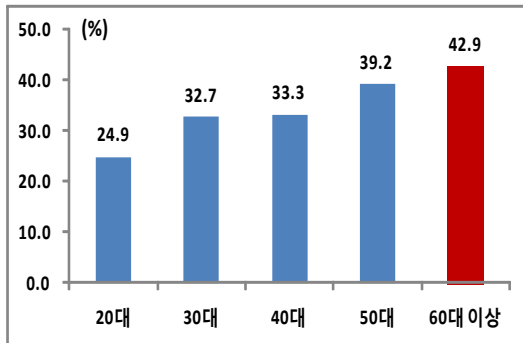
< 교육훈련 참여 의사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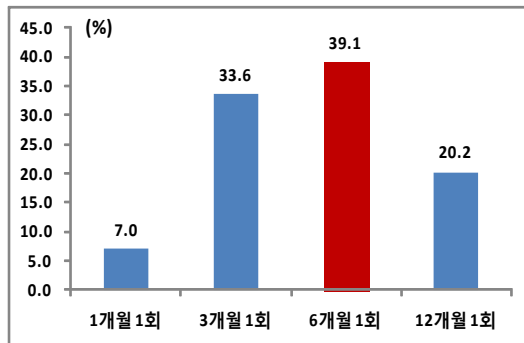
< ‘반드시 참여’ 성별 응답률 >



< ‘반드시 참여’ 연령별 응답률 >



< 적당한 교육훈련 횟수 >



3. 안전 정책 및 투자의 우선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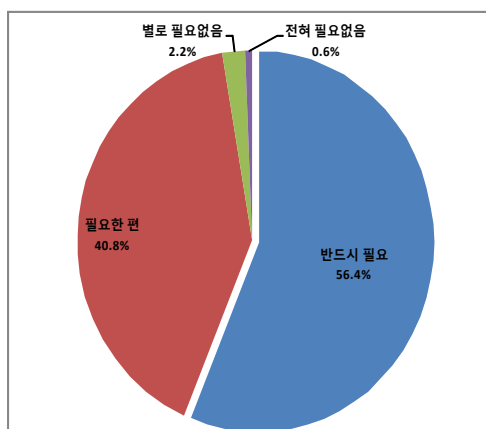
○ (안전투자의 필요성) 우리 생활·사회 기반시설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97.2%가 공감을 표시

- “우리 주변의 건물, 사회기반시설 등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반드시 필요하다’ 56.4%, ‘필요한 편이다’ 40.8%로서, ‘필요하다’는 답변이 97.2%에 달함
- ‘별로 필요 없다’(2.2%)와 ‘전혀 필요 없다’(0.6%)는 응답은 매우 미미한 편임
- ‘반드시 필요하다’(56.4%)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은 ‘여성’, ‘화이트칼라’, ‘고소득층’, ‘고학력층’, ‘서울지역 거주자’ 등이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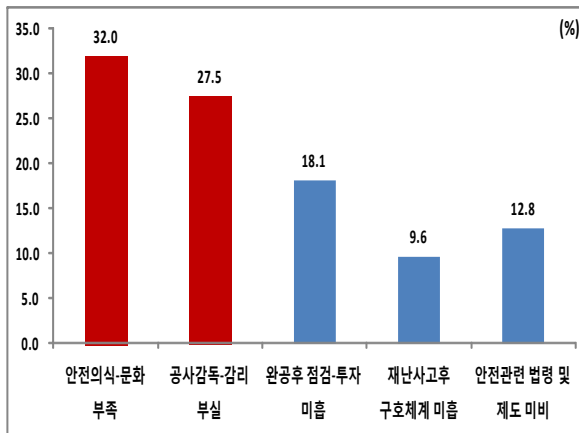
○ (‘안전한 나라’의 걸림돌) ‘안전한 나라’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, 가장 취약한 분야는 ‘안전의식과 문화의 미숙’이라는 응답이 32.0%로 가장 높았음

- ‘안전한 나라’를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분야는 ‘안전의식과 문화의 미숙’(32.0%)이었으며, ‘공사 감독과 감리 부실’(27.5%), ‘완공이후 주기적 점검과 투자 미흡’(18.1%) 등의 순이었음
- 이어서, ‘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미비’(12.8%), ‘재난 및 사고 이후의 구호체계 미흡’(9.6%) 등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았음
- 연령별로 보면, 20대, 30대, 40대는 ‘안전관련 의식과 문화의 미숙’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으며, 50대와 60대 이상은 ‘건설 공사에 대한 감독과 감리의 부실’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음

< 안전투자의 필요성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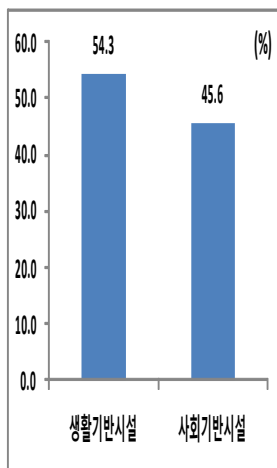


< ‘안전한 나라’ 만드는데 걸림돌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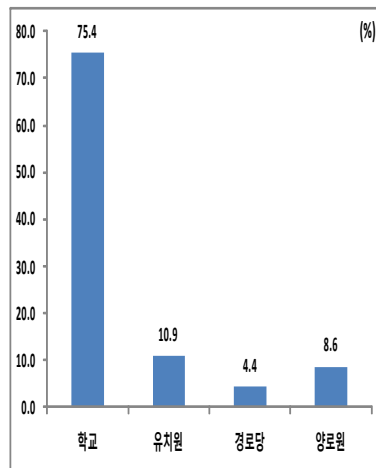


- (안전투자 우선순위) 안전투자의 우선순위는 생활기반시설(54.3%)이 사회기반시설(45.6%)보다 약간 높았고, 생활기반시설에서는 ‘학교’(75.4%)가, 사회기반시설에서는 ‘다리’(33.3%)와 ‘상하수도’(25.3%)가 높게 나타남
 - “건물과 시설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나요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학교, 유치원, 경로당 등 생활기반시설’(54.3%)이 ‘다리, 터널, 배수로,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’(45.6%)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
 - ‘생활기반시설’(54.3%)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은 ‘20대’와 ‘30대’, ‘학생’과 ‘블루칼라’ 등이었으며, ‘사회기반시설’(45.6%)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은 ‘50대’와 ‘60대 이상’, ‘전업주부’ 등이었음
 - “생활기반시설 가운데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학교’(75.4%)라는 응답이 압도적임
 - 이어서 ‘유치원’(10.9%), ‘양로원’(8.6%), ‘경로당’(4.4%), ‘기타’(0.8%) 등의 순
 - ‘60대 이상’ 고령층의 경우에도 ‘학교’라는 응답(75.9%)이 평균을 상회함
 - “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?”라는 질문에 대해 ‘다리’(33.3%)와 ‘상하수도’(25.3%), ‘발전소’(20.4%)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함
 - 이어서 ‘터널’(10.3%), ‘철교’(6.4%), ‘저수지’(3.5%), ‘기타’(0.9%)의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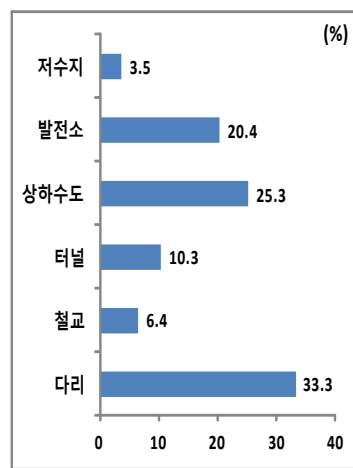
<안전투자 우선순위>



<생활기반시설 우선순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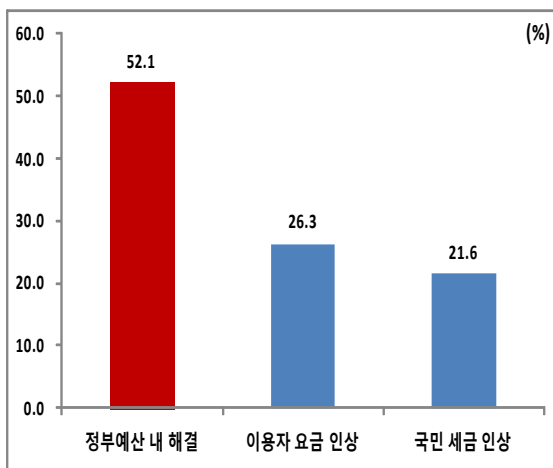
<사회기반시설 우선순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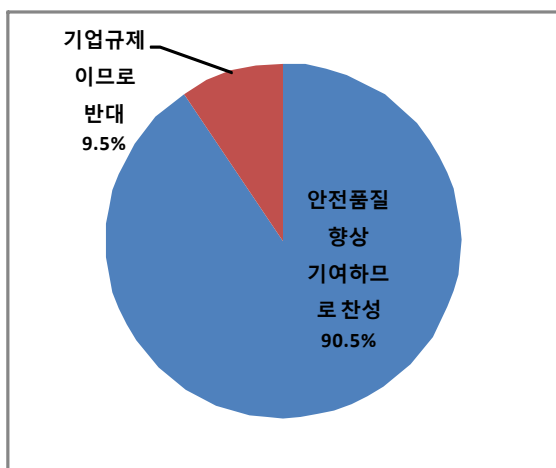
- (투자재원의 마련 방안) 안전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의 마련 방안으로는 '정부 예산'(52.1%), '요금 인상'(26.3%), '세금 인상'(21.6%) 등의 순으로 답변하여, 추가적 세금 인상에는 거부감이 있음
 - "안전관련 시설, 제품,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어떤 방안에 찬성하십니까?"라는 질문에 대해 '세금이나 요금 인상 없이 정부 예산 내에서 해결'(52.1%)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함
 - 이어서, '이용자의 요금 인상'(26.3%), '국민 전체 세금 인상'(21.6%)의 순
 - 결국,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세금 인상에는 거부감이 있으며, 최후의 방안임

- (안전등급제 도입) 안전품질의 평가에 따른 안전등급제의 도입에 대해 10명 중 9명(90.5%)이 찬성하는 등 긍정적으로 답변
 - "귀하께서는 안전품질의 평가에 따른 안전등급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"라는 질문에 대해 '안전품질 향상에 도움 되므로 찬성'(90.5%)이라는 응답이 '기업에 대한 규제로서 반대'(9.5%)라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음
 - 즉, 안전등급제를 기업에 대한 '새로운 규제'라고 인식하기보다는 '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장치'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
 - 특히, 가구 구성원 중 상대적으로 구매 결정권이 강한 '전업주부'의 경우 '찬성한다'는 응답률이 97.7%로서 평균(90.5)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

<안전관련 자원마련 방안>



<안전등급제 도입>



4. 시사점

- (안전 관련 국민인식)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, 특히 20대, 학생, 전업주부 등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
 - 안전의식과 실습교육이 특히 부족한 계층은 연령별로는 '20대'였고, 직업별로는 '학생'과 '전업주부'로 드러나,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
 -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나름대로 교육훈련에 참여할 기회가 있지만, 20대와 학생, 전업주부 등은 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'사각지대'에 놓여있음
 - 다만, 안전 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전체의 98.7%가 공감하고 있고, 교육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전체의 93.6%로 나타난 점은 그나마 다행임
- (안전 관련 정책 및 투자 우선순위) 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한 투자는 우선적으로 생활기반시설에 집중되어야 하며, 그 중에서도 '학교'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가 시급함
 - 안전투자는 다리, 터널 등 '사회기반시설'보다는 학교, 양로원 등 '생활기반시설'이 더 시급하며, 생활기반시설 중에서는 '학교'에 우선 투자되어야 함
 - 안전 관련 정책에 있어서는, '안전의식과 문화의 향상'을 위한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
- (투자비용의 수용성) 안전투자를 위한 재원의 조달에 있어서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
 - 안전투자를 위한 재원의 조달은 '현재의 예산 내에서 해결해야' 한다는 응답이 많아서,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함을 알 수 있음
 - 안전등급제의 도입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 품질을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

경제연구본부 정책연구실장 김동열 (2072-6213, dykim@hri.co.kr)

<별첨> 조사 개요 및 샘플 구성

1. 조사 시기 : 2014년 8월5일~9일(5일간)
2. 조사 방법 : 전화 설문조사
3. 대상 :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,004명
4. 허용오차 : 최대 허용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$\pm 3.09\%p$
5. 샘플의 구성 (아래 표 참조)

단위: 명, %)

성별		연령별					직업별							학력별				전체
남	여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~	화이트 칼라	블루 칼라	자영업	학생	전업주부	농림어업	무직기타	중졸	고졸	대졸	대학원졸	
498	506	209	248	264	171	112	457	145	111	79	132	9	67	39	224	662	63	1,004
49.6	50.4	20.8	24.7	26.3	17.0	11.2	45.7	14.5	11.1	7.9	13.2	0.9	6.7	3.9	22.7	67.0	6.4	100